



“와~나비다” 19일 오후 함평군 엑스포공원 나비생태관에서 열린 ‘제16회 함평 나비대축제 성공 기원 나비 날리기 행사’에 참여한 어린이들이 꽃 위에 앉은 나비를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관찰하고 있다. 함평 나비대축제는 5월 2일부터 11일까지 함평 엑스포공원에서 ‘나비와 함께 풍요롭고 행복한 세상’을 주제로 열린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정부, 재정누수 막는다며 기초생활수급자 지정 취소 잇따라 빈곤층, 복지死角으로 내몰린다

광주에서 홀로 사는 노인 A씨는 가족이라고는 대전에 사는 딸이 전부다. A씨는 딸과 왕래가 끊긴 지 오래인데다 경제력이 없어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돼 근근이 삶을 이어왔다. 하지만, 정부에서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부양의무자인 딸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기초생활수급자 지정을 취소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A씨는 딸과 왕래도 없고, 가정형편이 너무도 어려워도 수급대상자 심사에서 탈락했다”면서 “현 정부 제도로는 도울 방법이 없어 시 자체 예산을 이용해서라도 생계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복지재정 누수를 막겠다며 현실과 동떨어진 심사기준이 포함된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을 도입한 이후 광주·전남지역에서 기초생활수급권을 박탈당하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빈곤층들이 사지(死地)로 내몰리고 있다.

광주·전남 기초수급자 3년만에 3만여명 줄어 긴급복지 이용 2배 늘어

19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10년부터 복지비 부정수급자를 퇴출하겠다고 각종 소득재산을 일괄 조회할 수 있는 ‘행복e음’을 운영 중이다. 하지만, 소득자와 부양의무자 기준 등이 지나치게 강화된 탓에 국가의 보살핌이 필요한 빈곤층까지도 기초수급자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행복e음 이전에는 기초수급자 심사 시 상시근로 소득(정규직)만 반영했으나, 현재는 일용직 소득까지 반영하는가 하면 교류가 끊긴 가족도 부양의무자로 포함해 기초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불합리한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광주지역 기초수급자는

2010년 6만6852명에서 2011년 6만2596명, 2012년 6만684명, 2013년 5만9962명 등 불과 3년 만에 11%(6890명)나 감소했으며, 전남지역은 2010년 10만6081명에서 2013년 8만3155명으로 2만5766명(24%)이나 줄었다. 전국적으로도 같은 기간 20만2180명의 기초수급자가 사라졌다. 기초수급 감소자 중 상당수는 빈곤탈출에 성공했다기보다는 강화된 제도 때문에 수급권을 박탈당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광주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를 반영하듯 기초수급자는 감소한 반면 소득이 없거나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 ‘긴급복지(기급)제도’를 이용한 비수급 빈곤층은 급증하는 추세다.

실제 1인 기준(1회) 최대 39만9000원을 지원받는 긴급복지제도 이용자는 광주의 경우 2010년 3535명(49억원), 2011년 3607명(40억원), 2012년 6411건(33억원), 2013년 9286건(62억원)으로 3년 만에 두배 이상 늘었다.

전남도 2010년 2960명(46억원)에서 2013년 5464명(43억원)으로 두배 가량 증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정부에서 사회안전망의 효율성과 재정누수만을 강조한 나머지 정작 위기가정과 기초수급자의 발굴과 보호는 소홀히 하고 있다”면서 “기초수급자와 긴급지원 대상자의 심사 기준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학교설립 60주년 (1954~2014)
60년 전통의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기초수급 탈락 빈곤층 1인당 月 38만원 지원
광주시 전국 첫 지원책 마련

광주시가 전국 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기초생활수급자 탈락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활고, 자살 등을 방지하기 위한 ‘생명구제 종합지원대책’을 마련했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19일 오후 광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현실화, 긴급복지 지원 대상 확대, 채무일회행복상담센터 활성화 등을 발표했다.

시는 우선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현실화를 위한 ‘광주형 기초생활 지원 기준’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오는 5월부터 생계가 어려운 데도 부양 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수급자에 탈락한 빈곤층 1000여명에게 1인당 월 평균 38만원씩을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또 긴급복지(기급)제도 지원 대상도 최저 생계비를 150% 이하로 높이기로 했다.

강 시장은 “광주민들은 복지사각지대에서 신음하는 시민이 없도록 광주형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

“유라시아 대륙철도 호남축 포함시켜야”

정부 부산 기점 방침에 광주시·전남도 반발
내일 합동공청회 열려

박근혜 정부 들어 구체화되고 있는 실�크로드 익스프레스(Silk Road Express, SRX)과 관련, 오랜만에 광주시와 전남도가 한 목소리를 내고 나섰다. 무안국제공항, 호남고속철도 등 사회기반시설을 놓고 대립 관계를 보였던 시·도가 최근 박근혜 정부가 부산을 기점으로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발끈한 것이다.

시·도는 21일 광주상공회의소에서 철도 관련 국장, 발전연구원 소속 연구자, 대학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유라시아대륙철도 호남축 포함 촉구’를 위한 합동공청회를 개최한다.

주제발표는 전남발전연구원 조상필 지역행복연구실장, 좌장은 이진철 전남발전연구원장이 맡았고, 오광록 전남도 건설발매국장, 차영규 광주시 교통건설국장, 정봉현 전남대 교수, 최진석 한국교통연구원 철도정책산업연구실장 등이 지정토론자로 나선다. 지난 2010년 무안국제공항 갈등 이후 사실상 사라졌던 정부 사회기반시설 정책에 대한 시·도의 공동대처가 다시 시작된 것으로 해석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실�크로드 익스프레스는 한반도 철도와 시베리아 횡단철도 미연결구간인 북한 철도를 연결해

유라시아 동북부와 유럽을 잇는 유라시아 물류통로를 말한다. 지난해 10월 박근혜 대통령이 유라시아 컨퍼런스 기조연설에서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실현방안으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선언하면서 관심을 모았다. 최근 언급되고 있는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노선은 부산~나진~하바롭스크~블라디보스토크~울란우데~모스크바~베를린~파리 등이다.

시·도와 관련 연구진들은 이에 따라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제1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및 수정계획 등에서 대륙 간 철도, 유라시아 횡단철도의 기·종점을 목표로 부산으로 하고 있는 만큼 호남축도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상필 실장은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을 위한 구체적인 대륙 철도에 대한 언급이 사라졌다”며 “현 여건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부산과 목포·광양이 최상의 방안으로 도출됐다”고 밝혔다.

조 실장은 또 유라시아 익스프레스의 전제조건으로 국토를 X자형과 박스형으로 연결이 가능한 남북 및 동서 철도망 구축을 꼽았다.

광주와 전남도는 동북아 경제권시대, 대륙철도 연결 중요성을 감안해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6~2025) 수립 시 호남축을 반영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할 예정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The C-Class 36개월 무이자 할부
062)226-0001
Mercedes-Benz

광주·전남 미래 주거환경 1번지!
혁신도시 프리미엄의 중심이 되다!
광주·전남혁신도시 중흥S-클래스 **센트럴** 아파트

전세대 4-BAY 혁신설계 중소형 대단지 아파트 단지 앞 상업지와 수변공원 중흥S-클래스 브랜드 프리미엄 16개 기관 이전의 미래가치

주택전시관 **BIG EVENT** 하나, 방문고객 사은품 증정! 둘, 매주 터지는 황금열쇠 셋, 초대박 행운을 잡아라!

3월21일 **오픈** (예정)

혁신도시를 대표하는 명품 대단지 - 중흥S-클래스

광주·전남혁신도시 중흥S-클래스 **센트럴**

총 993세대 중소형 아파트

문의 062) **364-0001**